

## New Headliner

September 2022 | 김지영 에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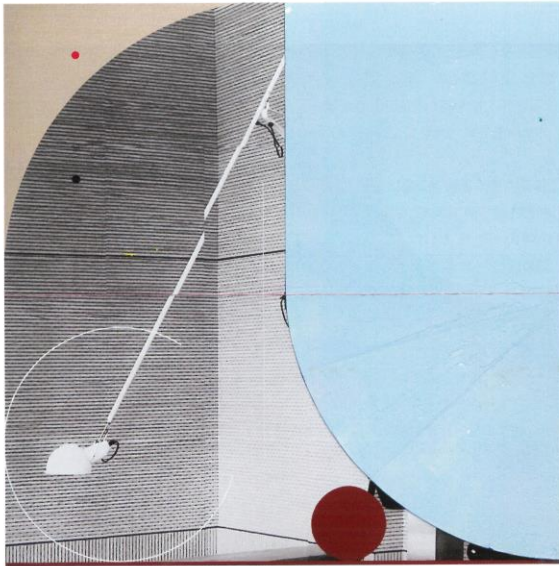
Page 1 of 4

## 이희준

이희준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공간을  
줄곧 사진으로 남겨둔다.  
하나둘 쌓인 이미지 중,  
그에게 특별한 기억을 안겨준 사진들은  
자르고 더하는 콜라주 과정을 거쳐  
또 다른 도시의 얼굴이 된다.  
그가 만든 도시의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는  
보는 이의 경험과 상상에 달려 있다.



스트라이프 나외 셀린느(Celine), 블랙 핑크 우영미(WooyoungMi), 화이트 캔버스 아미(Ami).



이희준, 'Flat White',  
Acrylic and photo-collage on canvas,  
100×100cm, 2022



이희준, 'Watermelon Juice',  
Acrylic and photo-collage on canvas,  
130×130cm, 2022

그림이 갤러리에 전시된 것처럼 걸려 있네요. 완성작인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림을 한동안 펼쳐놓고 보면 뭔가 부족하거나 하고 싶은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바로 전시하기보다는 이렇게 걸어두고 한동안 바라보는 것을 좋아해요. 사실 어떤 조형을 어디에 둘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작업실에 놓인 작품들도 완성에 가깝지만, 실제로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한 작품을 서너 주째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당탕탕하고 그리다가, 끝날 무렵에는 좀 더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별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점이나 선의 위치, 작은 터치의 관계에 따라 그림의 완성도가 달라지고 긴장감도 달라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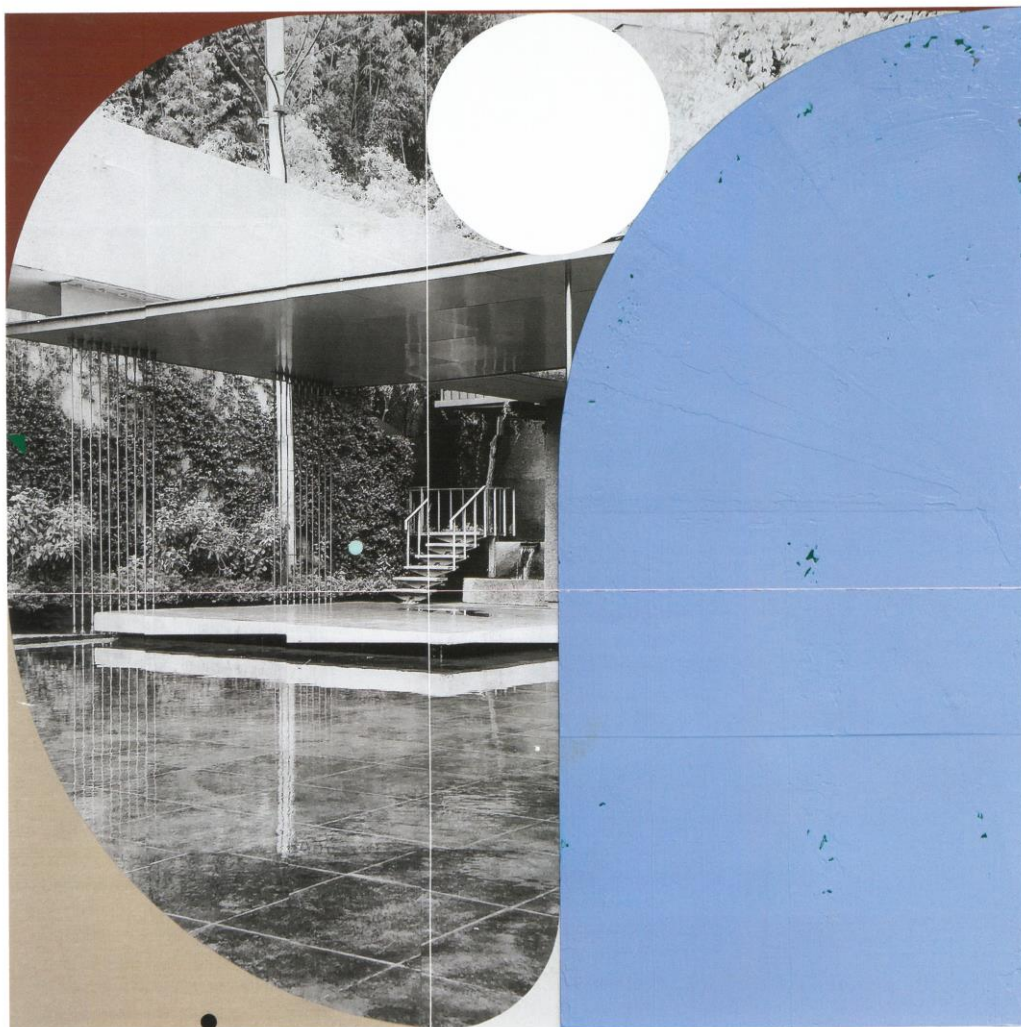
그렇게 고민의 시간을 거치다 보면 완성에 대한 확신을 얻는 순간이 오는 거겠죠? 그림 속 공간에서 느낀 어떤 감정이나 온도일 수도 있고요. 내가 받은 느낌이 제대로 담겼는지를 생각하다가 그림 자체로서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돼요. 설득력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지요. 어떨 땐 과하다 싶고, 어떨 땐 모자라다 싶어 헛갈릴 때도 많아요. 그럴 땐 청소를 해요. 지금도 청소를 싹 하고 벽도 다시 칠했어요.

도시의 면면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그림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싶은 공간과 머물고 싶은 공간은 일치하는 편인가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과하지 않은 공간을 좋아해요. 흔히 말하는 모던하면서 심플하고, 정제되어 있는 공간을 선호하는 편이지요. 오브제가 많이 있거나 내용으로 꽉 들어찬 공간이 아니라 수직과 수평의 마감이 잘 정돈되어 있거나 여백이 있으면 한결 편안한 기분이 들어요.

한 인터뷰에서 글래스고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을 때, 느껴졌던 서울의 분위기가 매력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누군가는 서울이 난개발되었다고 하고, 도시 계획이 제대로 구상되지 못했다고도 하죠. 그런데 들여다보면 서울에는 참 다양한 얼굴이 있어요. 오래된 빨간 벽돌로 쌓아 올린 단독주택이 모여 있는 동네도 있고,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처럼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곳도 있어요. 세련되고 감각적인 스타일이 즐비한 한남동이나 성수동 같은 동네도 있고요. 이런 다양함이 작가로서는 보고 느낄 것이 많아 좋은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한 인상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나요? 일상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공간을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어둬요. DSLR로 찍는 것보다는 화질과 화소가 확실히 떨어지지만 오히려 어떤 공간에서 경험한 느낌을 바로 담아낼 수 있어서 선호하는 편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기준선이 나오는 것처럼 작품에도 어떤 선이 보여요. 화면을 분할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선도, 면도 화면 위에 구축되었다는 생각을 해요. 기존의 이미지 속에 놓인 환경을 회화로 새롭게 접근하고, 그 공간에 제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죠. 온전히 저의 주관대로 이 공간을 읽어내는 방법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희준, 'The Hidden Waterfall',  
Acrylic and photo-collage on canvas,  
130×130cm, 2022

작가마다 작업 방식에 변화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간 작업을 해오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나요? 더 이상 이대로는 못하겠다 싶을 때가 있었어요. 일정 수 이상의 작품을 그리고 나니 제가 하는 작업의 방법 자체에 대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예전 작업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이야기와 접근법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좋은 전시 기획이 생기면 당시에 즉흥적으로 끌리는 재료를 써보거나 안 써본 재료를 써보는 과정을 통해 작업을 확장시키기도 했죠.

작품을 보면 색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색을 사용하는 데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정해두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공간에서 가장 크게 느낀 주류 색감이 있고요. 그 주류 색감을 표현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색을 고려해야죠. 감정이나 경험을 형상화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담아내고자 하는 것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 번의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2020년부터 시작한 'Image Architect' 시리즈를 보면 선이나 면은 컬러로 표현하되, 구조가 되는 공간은 흑백 이미지로 표현한 지점이 인상 깊었어요. 색이 있는 사진을 쓰면 그 공간을 담아낸 시간이나 온도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흑백 사진을 사용해서 보는 사람들이 '이곳은 어떤 분위기였을까'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작은 점이나 네모, 세모 안에 힌트를 담아두면서요.

관람객이 작품 속 공간을 상상하면서 즐거움을 얻는다면, 그녀는 사람으로서의 쾌감은 어디서 받고 있나요? 단순하게는 두꺼운 색선에 물감을 바를 때, 터치가 한 번에 잘되면 쾌감이 들 때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순간에는 구조까지 모두 잡아줬지만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면 작은 점이나 터치를 덧대면서 제가 구상한 화면이 조금 더 풍성해짐을 느껴요. 어떻게 한 번 더 짙을 거리가 생겼을 때, 완성에 가까워졌다는 만족감과 함께 그 순간만큼은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미술을 시각 언어라 칭할 때가 있죠. 본인 작업을 언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올라요? 종종 제가 그리는 작품이 썸네일 같다는 생각을 해요. 썸네일은 다른 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보여주는 이미지잖아요. 그것을 눌러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들어가봐야만 알 수 있죠. 안에서 선이나 면을 해체할 수도 있고, 각자의 이야기를 떼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추상 회화를 관람하는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뉘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무수한 질문을 통해 작가의 의중을 알아내고 싶어 하거나. 관람객들로부터 어떤 질문을 많이 받나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디테일한 질문을 보내더라고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저 터치는 의도적으로 사용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 회화라는 건 어떤 단어의 정의처럼 '사과는 사과다'라고 명확하게 풀이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회화의 매력이자 본질이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적이면 완벽한 대답을 하기보다 작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의 대답 정도만 전하려 노력해요.

이후의 해석은 각자의 몫인 거겠죠. 사람들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림이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거나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으면 하고요. 제 그림에 나온 카페와 비슷한 공간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가보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느끼는 경험은 달라질 테니까요.

삼성전자와의 협업으로 비스포크 냉장고에 작품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작품을 보여주고 싶은 새로운 통로가 있다면? 자전거나 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외부 디자인의 도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또 공공 미술은 다양한 사람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고, 안전성 문제도 고려해야 해서 시도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다 오픈된 공간에서 작업을 보여주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건물의 한 벽면이나 길목의 담장일 수도 있겠고요.

곧 키워드 서울에 참가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 중인가요? 페어라는 장 자체가 판매를 위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 솔드 아웃 되면, 그것만으로도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떤 흐름이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가기 어려웠던 해외 갤러리나 평소 못 보던 작가들도 많이 참여하게 될 테니 종합 박물관처럼 다양한 작가들의 감각과 생각을 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큼니다.

작가로서 어떤 실험들을 시도해나가고 싶은가요? 여전히 해봐야 할 실험이 많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재료를 써보려고 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제 작품에서 사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캔버스가 아니라 예전에 썼던 타일을 배경 삼을 수도 있고 새로운 재료의 사용을 통해 그 재료와 회화가 결합되거나 설치 방식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메타버스로 가는 시점에서 작가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작업실 안에는 여전히 빈 캔버스가 많아요. 좀 더 많은 양의 그림을 그리게 될 거예요.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빈 캔버스를 보면 부담과 설렘이 공존했는데 이제 빈 캔버스를 보면서 비로소 시작하게 돼요. 저 안에 무얼 담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 때문에 일부러 캔버스를 더 준비해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